

구심점 잃은 親李 낙천자들 ‘각자도생’

김무성 백의중군에 탈당 보류 등... 불출마 선언도 잇따라

새누리당 4·11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이 구심점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집단 탈당을 시도하다가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4선의 김무성 의원이 ‘백의중군’을 선언하자 망연자실(茫然自失)한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이 자신의 최측근인 진수희·권택기 의원의 탈당을 만류하고 나섰다. 이때문에 진수희 의원은 12일 탈당 선언을 하려다 막판 ‘보류’로 입장을 선회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친이 공천 탈락자들의 집단행동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친이계 10여명은 향후 거취를 모색하기 위한 공동 논의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전 총리를 새 구심점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견해, 공천을 받지 못한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전략적 연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간헐적으로 나오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서울 지역 한 친이계 의원은 13일 “당분간 한자리에 모여 합의를 이루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공천에 대한 감정이 서로 다르고,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낙천한 친이계 의원들은 ‘백의중군’ 또는 무소속 출마, 새 정치세

력과 연합 등 각자도생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 마포갑 공천에서 탈락한 강승규 의원은 “앞으로 예비후보로 계속 뛰면서 공직후보추천위원을 상대로 재심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향후 거취는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가 전략지역으로 선정된 3선 김학송 의원(경남 진해)도 백의중군을 선언했다.

조선 정해결 의원(경북 군위·의성·성주)은 “보수 분열에 대선 판도까지 빨간불이 켜진 마당에 한 가족끼리 싸우고 뛰쳐나가고 새로 만들고 하는 모습은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구·강화(을)은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갈림길에서 개개인의 기득권과 감정에 연연해 더 큰 일을 그려볼 수는 없다”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새누리당에 남아 백의중군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가 전략지역으로 선정된 3선 김학송 의원(경남 진해)도 백의중군을 선언했다.

조선 정해결 의원(경북 군위·의성·성주)은 “보수 분열에 대선 판도까지 빨간불이 켜진 마당에 한 가족끼리 싸우고 뛰쳐나가고 새로 만들고 하는 모습은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11 총선·보선 현장

김충조, 무소속 출마 선언

5선의 민주통합당 김충조 의원이 탈당, 여수갑 선거구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13일 탈당선명에서 “민주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의 헌신, 성실, 애당심은 폄하되고 선수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물러나기를 강요 당해 왔다”며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능력, 청렴성, 도덕성 등의 자질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보다 당을 먼저 생각하고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뤄냈던 많은 당원 동지들이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당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11시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연대는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의 후퇴, 남북관계를 거꾸로 돌린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을 총선에서 심판하고 12월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민주통합당 서대석, 이상갑 예비후보의 통합 경선 요구에 대해 “민주당 후보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답해 사실상 통합 경선을 거부했다.



해남 무소속 3명 단일화 추진

4·11 총선을 앞두고 해남출신 무소속 후보 3명이 단일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해남출신 김홍철·민병욱·양동주 후보는 13일 해남군청 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들여 단일화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단일 민주통합당 경선 참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단일화 합의는 무효로 하고 모두가 이번 선거에 출마해 끝까지 경쟁키로 했다”고 말했다.

양형일, 무소속 출마 선언

양형일 광주 동구 예비후보가 13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양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원칙과 기준이 있는 공천이라면 마땅히 관련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출마해야 했다”며 민주통합당의 무공천을 비판한 뒤 “누가 올바른지, 지역발전의 책임자인지 동구 주민께 직접 묻겠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동구에서 발생한 관공·금곡 선거와 관련해 박주선 의원은 정계를 떠나고 유태명 동구청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정치 1번지 광주 동구의 명예를 시공장에 빠뜨렸고, 자신을 탐다 희생한 고인에게 ‘일면식도 없다’고 말한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두 사람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충훈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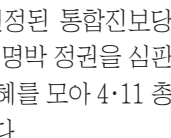
무소속 조충훈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1개월 후면 계약을 해지하는 게 현실”이라며 “공공부분이 먼저 올바른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환대상자들의 평가와 절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 지침 등에 의거해 임금체계 등도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병윤 “총선 반드시 승리할 것”

광주 서구를 아권연대 후보로 선정된 통합진보당 오병윤 후보는 13일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데 함께 하는 어떤 사람과도 지혜를 모아 4·11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아권

민주 비례대표 키워드 ‘개혁정신·도덕성’

민주통합당이 13일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가장 중시되는 평가 기준은 개혁적 시대정신과 도덕성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욱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심사 위원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대에 맞는 역사적식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확고한 민주개혁적 의식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보다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어느 정치인들보다도 흠결이 없는 비례대표를 추천할 각오”라고 말했다.



4·11 총선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김광진(오른쪽부터), 안상현, 정은혜씨가 1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총선 정책·공약 점검회의에 참석해 김진표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청년 비례대표 후보자들 첫 공식회의 “2030 조직화·세력화...목소리 내겠다”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13일 당의 공식회의의 석상에 처음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1일 최종 경선에서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김광진, 안상현, 정은혜 씨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총선 공약·정책 회의에 참석, 각오를 밝혔다.

경선에서 1위를 해 청년 몫의 최고 위원으로 선임될 순천 출신의 김광진

(31) 씨는 “어제 통합진보당에서도 한명의 청년 비례대표 후보가 나왔고 오늘 ‘청년당’도 창당된다”며 “2030 세대의 조직화와 세력화를 기본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충실히 내겠다”고 다짐했다.

안상현(29) 후보는 “새누리당의 가짜 청년 비례대표와 달리 민주당의 청년 비례대표 후보가 어떤 진문심과 진정성을 가지는지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은혜(여·29)씨는 “청년은 정의감과 분노가 살아 느껴져야 하는데 새누리당 청년비례 후보들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저는 비정규직으로 등록금을 걱정하고 스펙 쌓기에 열중하던 청년의 현실을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비례대표 후보인 장하나(여·35)씨는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제주 강정마을에 가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청년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진보신당 “야권 단일후보 쓰지 말라” 발끈

법적 대응도 밝히

진보신당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사용하는 ‘야권 단일후보’ 명칭에 발끈하고 나섰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13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두당의 선거연대 후보에 대한 ‘야권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

에 해당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야권 단일 후보 표현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진보보당’ 표현을 쓰게 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진보신당은 지금까지 수차례 공식입장을 통해 야권연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철저히 배제됐고 진

보신당을 배제한 채 진행된 당당 연대에 의한 단일후보를 야권 단일후보로 표현하는 것 또한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보신당은 언론사도 이 같은 표현에 대해 오히려 정정해줄 것을 덧붙였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의 약칭을 진보당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며 “통합진보당은 통진당으로 약칭을 쓰거나 약칭 없이 정당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NAVER 싱크리더 음식물 처리기

음식물 처리기 최강자

음식물 처리기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아직도 망설이시나요?
무료체험 해보시고 결정하세요!(3-5일)

구입시 Check point! 이모든게 다있다!

- 2차량량기 유무 (하수관 막힘현상발생)
- 1년 무상 A/S보장
- KC국가인증제품 유무
- 대한민국 제품확인

석재기와 동시에 20초만에 OK!

제품명: SL-208

광주·전남 대리점 모집 광주시사 652-8923
주부·판매사원 모집 010-2744-8922

SNKLEADER
made in Korea

전통 침·뜸·부항

무료 공개강좌 & 수강생모집

- 중국 중의약대학과 18년간 학술교류로 체계화된 교육과정
- 중의약대학 침구과(3년), 중의과(5년) 학점인정
- 해외에서 인정되는 중국 자격증 취득가능
- 중국, 미국 한의대 석박사과정 입학 및 편입가능
- 의료개방 대비, 자기 건강관리, 해외봉사를 위한 연수세미나
- 해외이민, 한방병원 설립 및 해외진출, 취업지원

“알기쉬운 침구학” 세미나과정

- 기본과정(4개월-주1회3시간)
주요과목: 침구학개론 (침뜸기초, 경락경혈, 침구치료), 한방기초
- 전문과정(1년)
주요과목: 중국침구학연수, 중의학, 경혈학, 진단학, 방약학, 해부학 등

공개강좌일정 광주27기) 3월 16일(금) 오후 2시
위치: 쌍촌역 1번출구에서 화정역방향으로 50m직진 3층

* 본 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서울분원/대전분원/대구분원/부산분원/울산분원/광주분원/제주분원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매매

층별	면적	평	층고	용도
1층	1,374.92	415.91	4.8m	근생, 업무시설, 기계실
2층	1,346.28	407.25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3층	1,355.08	409.91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4층	1,359.78	411.33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5층	1,360.28	411.48	3.75m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층	665.60	198.32	3.75m	업무시설(사무소)
7층	1,375.18	415.99	4.8m	업무시설(사무소)
8층	1,385.18	419.02	4.8m	업무시설(사무소)
9층	1,330.88	402.59	4.5m	업무시설(사무소)
소계	11,543.18	3,491.81		

장부가격(감정가) 14,000,000,000원
매매예정가격 12,000,000,000원
현공정율 약 85% 진행

적용가능용도
예식장, 주택전시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일반전시관, 교육장, 학원시설 및 실내 워터나센터, 워터파크, 영화관, 극장, 종교집회시설 병원 등
최대층고기 7.5m 이므로 다양한 건축물의 시설군, 용도군 도입가능 함

문의처 : 010-3625-6984